

# 학부제의 추진은 과연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이정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공과대학 교무부장)

요즘 우리나라의 각 대학교는 학사 운영에 일대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학과의 통폐합을 비롯하여 전 대학에 학부제(일부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학부, 계열학과 또는 학과군의 통칭으로 부르려고 한다.) 도입의 구상, 법과대학의 개편(대학원 대학인 로-스쿨로 전환) 등의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안(案)들이 모두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앞으로 많은 검토와 관련 교육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지만 대학은 다가오는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처하여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는 자구책을 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요람생활에 벗어나 경쟁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최대 전환기를 맞아 어떻게 보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은 이보다 앞서 1992학년도에 서울대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학과를 합하여 전기·전자·제어공학과군(1994년에 전기공학부로 변경)이라는 하나의 입학 모집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부터 유사학과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는 1992년 9월에 공과대학에서 먼저 유사학과의 통합을 거론하기 시작하여 1994학년도에 건축계열과 기계

계열학과를 통합개편 하였고, 이어서 1995학년도에 전자계열, 금속·재료계열과 화공계열학과를 통합하였다.

지금까지 학과나 단과대학을 신설한 경험은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학과를 통합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유사학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학부제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고, 학부제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만큼, 한양대학교가 학과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학부제로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대학의 관계자들에게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다소나마 참고가 된다면 이 글을 쓰는 보람이 더해질 것이다.

## 1. 학부제의 의미

학부라고 하면 먼저 “○○대학 ○○학부”라고 하는 명칭이 생각난다. 이때의 학부는 엄연히 대학의 단위기관으로 학부 밑에 여러개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학부는 학과위에 존재하는 상위 개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에는 한때 공과대학의 전체 학과를 편의상 5개 공학부로 나누어 공학부 밑에 여러 학과가 소속하는 것으로 했다. 이때의 공학부는 공과대학에 많은 학과(19개 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행정 단위로서가 아니고, 행정편의상 공대학장의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정도에 그쳤으며, 공학부의 명칭도 특성이 없이 제 1, 2, 3, …공학부라고 불렀다. 그러나 현재는 공학부

를 두지 않고 있다.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학부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교육부는 95년 3월 1일부터 교육법시행령에 학부를 도입하여 학과통폐합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알려졌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대학의 교과과정 기본단위로 학과만을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 이상의 유사학과를 통합한 학부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학부 밑에 학과를 둘 수 없고, 2 이상의 전공분야를 두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부는 여러개의 학과를 통합한 대과(大科)의 의미를 가지며, 동 학부를 이수한 학생은 ○○학부(○○전공)으로 표기하여 졸업할 수 있다”이다.

덧붙여서 교육부는 이미 학부·계열 또는 학과군 등으로 학생을 모집한 경우에는 1995년 3월 1일부터 학칙을 개정하여 학부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계열 또는 학과군으로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는 모집·운영단위일 뿐 교육행정단위(보직)로 인정되지 않으나, 졸업생의 경우에는 ○○학과군(○○전공), ○○계열(○○전공)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부는 유사학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통합학과의 명칭으로는 “○○학과”나 “○○학부”의 2가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학과군”이나 “○○계열”이라는 명칭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유사학과를 통합개편하여 학과군이나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교육법 시행령에 맞추어 학과명을 “○○학부”로 고치지 않으면 통합한 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은 법

적으로는 소속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다만 학칙상으로는 문제가 없음). 한편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학부와 학과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와 학과를 다르게 구분해야 되는지 또는 학부와 학과는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학과 개념과 같다고 보아도 좋을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현재의 학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예를 들어 교수를 더 충원하고 여러 전공을 설치하면 학부라고 해도 되는지 애매한 상태이다.

## 2. 학과통합의 추진배경

학과통합은 공학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에 따라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공학적인 사고와 연구개발에 지극히 중요한 기초적인 공학교육을 튼튼히 하려는 대학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직업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학부중심 대학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대학마다 독특한 특성이 없이 어느 대학이나 비슷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은 둘째치고 국내대학간에도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쟁력면에서 국내 기술수준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으며,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우수한 기술인력을 배출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현재 우리의 공과대학들은 다

가오는 교육개방에 대처하여 무한 경쟁에서 이겨내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대학현실을 살펴보면

1) 교수와 학생수가 너무 적어 규모가 영세한 학과들이 많다.

2)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3) 유사과목이 많고 교과목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정상적인 교과과정의 편성이 어렵다.

4) 실험실을 포함하여 기자재를 학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이용효율이 떨어진다.

5) 학과중심으로 강의 시간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을 받기 어렵다.

6) 대학원 진학시 전공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하다.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하게 세분화된 학과와 유사학과의 통합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학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

학과통합을 추진하게 된 데는 1992학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전기·전자·제어공학과군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것이 큰 몫을 하였으며, 그 후 교육부에서 유사학과의 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이 학과통합을 추진하는데 뒷바침이 되고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일본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부성의 주도아래 과감하게 학과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학과통합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은 공과대학에 10개의 내외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학의 자율에 따라 학과개편이 이루어 지고 있다.

### 3. 학과개편 추진과정

#### 3.1 학과개편의 기본구상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학과개편 구상은 92년 2학기 초에 계열통합연구위원회 의가 구성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계열별로 연구위원회의에서 계열화에 관한 제반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 1 참조).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열에 따라, 학과별 입장에 따라 통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보고를 기준으

〈표 1〉 통합 대상학과 및 통합방안

계열	관련학과	통합방안	학과명	비고
토목·건축계열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부분 통합 1)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와 통합 2) 토목공학과와 도시공학과는 존속	1) 건축공학과	4개 전공계열 설치 요구 1) 건축계획계열 2) 건축환경 및 설비계열 3) 건축재료 및 시공계 열 4) 건축구조계열
전기·전자계열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부분 통합 1) 전자공학과, 전자 통 신공학과, 전파 공학 과의 단계적 통합 2) 전기공학과는 제외	-	-
금속·재료계열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통합반대	-	-
기계계열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원칙적인 통합에 찬성하 나 학과별로 전공설치에 이전	기계공학부	1) 기계공학과와 기계설 계학과 : 전공모듈과 정 원을 두지 않는다. 2) 정밀기계공학과: 전 공모듈과 정원을 둔다.
화공계열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공업화학과	[제1안] 부분 통합 화학공학과와 공업화학과 를 통합하고, 섬유공학과 와 무기재료공학과는 존 속하는 방안 [제2안] 형식적 통합 화공계열공학부로 두고 현재의 학과단위로 운영	[제1안] 공화/화공 같 은 나열식 [제2안] 추후결정	[제1안] 1) 전공설치 요구 공업화학전공, 화학공업전공 2) 학점 상향조정 졸업학점 160학점 개설학점 190학점

비고 : 전파공학과와 자동차공학과는 원칙적으로 계열통합 대상학과이지만 학과의 설립취지가 특수했기때문에 제외 하였음.

로 학과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였다.

동시에 학과통합에 따른 많은 장단점 및 건의사항이 제시되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장점)

- 1) 전공 및 선택과목의 다양화
- 2) 공통과목의 효율적인 교육
- 3)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의 공동이용
- 4) 교수간 또는전공분야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연구 가능성의 증대
- 5) 연구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의 기대
- 6) 교수의 강의부담 경감
- 7) 강의 담당교수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짐 (학생)
- 8)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수급에 적절히 대처 가능

(단점)

- 1) 인기 전문분야로 학생들의 집중 편중화
- 2) 특수과목의 사장화(폐강 등)
- 3) 기존의 학과와 산업체(또는 관련단체)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짐
- 4) 수강학생의 과다로 교육성과의 질적 저하
- 5) 행정단위(부 또는 과)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 6) 학생수가 방대해짐으로써 학생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7) 전공별 균형발전의 저해  
(건의사항)
- 1) 책임강의시간 인하(6학점)
- 2) 졸업학점의 상향조정(150~160학점)
- 3) 분반강의(50명/반)

4) 최소 수강인원의 하향조정(10명/과목)

- 5) 조교 및 실험기사의 확충
- 6) 설강과목의 확대(180~190학점/계열)
- 7) 논문지도시간 인정(1학기, 3시간/주)
- 8) 졸업논문의 학점인정(1학기, 3학점)

### 3.2 학과개편의 시행

공과대학은 계열별 연구보고서와 그 후에 열린 교수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학과통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부터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먼저 1단계로 1994학년도에 건축계열 학과와 기계계열학과를 통합하여 공과대학을 기존의 21개 학과에서 18개 학과로 개편하였다. (표 2 참조)

1단계로 학과개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관련학과의 교수, 학생, 학부모들의 이해부족, 비협조, 학과 이기주의 및 대화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이상의 학과개편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 학과개편에 관한 대학본부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근거로 하여 1995학년도에 2단계 학과 개편을 실시하여 공과대학은 1공학부, 4공학과군, 6개 학과로 되었다. (표 3 참조)

### 4. 학과통합개편에 따른 문제점

지금까지 대학은 학과신설이나 단과대학 신설만 해 온 상태에서 학과통합은 전

학부제의 추진은 과연 잘 되어 가고 있는가

레가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학과통합에 관한 추진과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은 학과통합이 과도기적인 상태이므로 학과관계에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 2단계로 나누어 학과통합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노출되었던 몇가지 문제점과 장애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4.1 학과명칭

각 계열은 학과통합에는 찬성하였으나 학과의 명칭에는 학과의 이해가 엇갈리는 점 때문에 쉽게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

1단계 통합때는 기계계열학과에서 "기계공학과"라는 명칭에 대하여 정밀기계

〈표 2〉 건축 및 기계계열학과의 개편내역(1994학년도)

계열	관련학과	통합학과명	이수학점 / 개설학점	전공 유, 무	비고
건축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150)*/189	-	-
기계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공학과	140/161	기계공학전공 정밀기계전공 기계설계전공	전공별 교과과정 설강

\* 건축공학과(통합후)가 요청한 학점임

〈표 3〉 2단계 학과개편 내역(1995학년도)

관련학과	개편학과명	영문표기명
건축공학과	건축공학부	School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자·전자통신·전파공학과군	School of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Radio Engineering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재료·금속공학과군	School of Materials and Metallurg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기계·정밀기계·기계설계·자동차공학과군	School of Mechanical, Precision, Design and Automotive Engineering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공업화학과의	화학공학·공업화학·섬유·세라믹공학과군	School of Chemical Engineering, Industrial Chemistry, Textile and Ceramic Engineering

\* 토목, 도시, 전기, 자원, 원자 및 산업공학과는 종전과 변동없음.



따라서 공과대학은 자체적으로 학과통합안을 마련 하였으나 사실은 겉보기 통합, 다시말하면 계열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합에 동의한다는 대전제하에서 통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과과정이나 학과운영방안 전공설치 여부 및 교수의 담당과목, 장래의 교수채용분야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였다.



공학과와 기계설계학과의 흡수통합되는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한 바 있었다.

2단계 통합때는 기존 학과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간단한 학과명을 정하는 것이 무리한 것으로 보였고 재학생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때까지 교수들은 학과통합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속학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관망상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학과의 명칭을 무리하게 정하는 것이 오히려 교수들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었다.

또한 교육부의 지침도 학과명칭에 대하여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 <표 3>과 같이 여러학과를 나열하는 식으로 “○○학과군”이라고 결정하였다.



#### 4.2 전공설치

전공을 두는 문제는 계열에 따라 전공의 종류와 전공을 결정하는 시기 및 전공별 정원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하였다.

대체로 대학 1~2학년 때는 계열공통인 과목을 이수하고 3~4학년에 가서 전공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1단계 통합때는 입시요강에 정원을 두지 않고 전공을 명시한 예도 있었고 2단계 통합때는 전공에 관한 문제는 계열별로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으나, 화공계열은 아직도 전공결정 시기와 전공별 정원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 4.3 학생회 등의 통합 반대운동

학과 통합이 발표된 이후에 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통합에 반대하였고 일부 동문들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다.

학생회의 주된 반대이유는 통합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가 아니라 학생회와 협의가 없었다거나 학교측의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통합을 유보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고, 특정학과의 특성을 강

학부제의 추진은 과연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조하거나 주장을 수용하라는 학과이기주의를 들 수 있고, 동문회는 통합 이후의 연속성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학부모들은 무조건적 반대의 입장이었다.

이들의 반대운동 중에는 학교대자보 이용, 수업거부, 학생비상총회, 수시로 보직자와 면담요청, 터무니없는 요구사항 제시, 학부모를 이용한 통합반대 전화결기, 동문들의 학교방문 등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이(어떤 때는 학부모도 합세)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였다.

공과대학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점거농성을 풀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며 동문회와 학부모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한 후 지속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4.4 교수들의 협조문제

학과통합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교수의 몫이다.

교수가 학과통합을 결정한 후 통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의논하고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교수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문제성을 최소화 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련학과중 한 학과의 의견이 다르고, 일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수가 학과통합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다든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은 묵시적인 반대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며,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억지주장을 펴는 등 간접적인 비협조 사례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로 생각되었다.

4.5 학칙개정 등의 문제

일단 학과개편이 시행되었으면 이에 따른 학칙개정과 같은 법적,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뒤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며 그래야만 학사운영에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과통합 조치 후에 학과개편에 상응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의 편성, 학칙개정, 복학생 등의 문제, 새로운 학과로의 교수 소속변경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연히 과도기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났으며, 행정처리나 학사관리에 혼선이 따랐고 올바른 학사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5. 학과통합에 대한 준비

1, 2단계로 나누어 학과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과대학은 여러가지 면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구체적인 사전대비가 소홀하였기에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학과통합을 추진하려고 할때



학과통합에 따른 어려움이나 부작용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미리부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5.1 학과통합을 위한 추진기구 설치

이제까지 우리대학은 학과통합의 논의 및 추진을 주로 공과대학 차원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대학본부와의 논의과정에서 공대에서 합의된 학과명칭, 교과과정개편, 졸업이수 및 개설학점, 복학생 등의 문제가 수정되고 번복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적인 낭비와 시행착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과대학이 아닌 대학본부차원에서 통합을 담당하는 추진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5.2 학과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학과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관련학과 교수들이다.

교수들이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통합을 강요당하거나 주변여건에 굴복하여 마지못해서 학과통합이 이루어지는 인상을 받는다면 학과통합은 추진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에 처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학과에 따라서는 장래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는 면도 있고, 교수 개인에게는 앞으로 직장에 대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의 학과개편 추진과정을 서울대 전기공학부의 경우(공학기술, Vol. 1,

No. 3, 94)와 비교해 보았을때 대학마다 학과통합에 따르는 진통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으며 서울대의 경우에 우리대학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훨씬 많은 노력과 공감대 형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학과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에는 무엇보다도 교수사이에 학과통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교수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통합의지가 확고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부족할 때에는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 5.3 새로운 통합학과에 대한 소속감

학과개편이 실시된 후에 교수들은 행정처리, 교과과정, 소속학과 및 학과내의 동료의식면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게되며 새로운 학과와 기존학과 사이에 학과개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앞으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과도기적인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소속을 새로운 학과(학부 또는 학과군)로 재발령 조치를 한다면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수들이 새로운 학과에 쉽게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5.4 학과통합을 위한 특별지원

학과의 통합개편이라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해당학과의 통합에 대한 절실한 요망과 구체적인 사전논의, 충분한 공감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

연한 일이지만, 세계적인 학문적 추세나 주변의 환경변화와 국가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학과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열에 따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의 문제가 없는 학과도 있으나, 어떤 계열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과 사정에 따라 공감대형성이 부족하여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통합의지가 약하여 학과통합의 실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별지원 방안으로는 행정지원(사무직 및 기술직 직원 배치), 공간지원(연구실 및 실험공간의 우선 배치), 신분보장, 강의책임시간 축소, 대학원 지원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5.5 대학원과의 관계

지금까지 대학원에 설치된 대부분의 학과는 대학의 학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어 왔고 실질적으로 대학원과 대학의 각 학과는 동일한 교수가 속해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기존의 대학과 대학원의 학과는 거의 1대1의 관계를 맺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대학의 한 학과가 대학원에서는 여러개의 전공으로 나누어진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인원배정, 전공분야, 교과과정, 지도교수와 같은 학과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학칙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머지않아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겪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원과 대학간에는 대학의 학과가 통합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대학원은 별도의 학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지난 2년간 학과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것으로 학과통합이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고 어쩌면 지금이 시작이라고 볼때, 앞으로 학부제가 제대로 추진되어 학부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도기가 지나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과통합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통합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대 형성과 교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과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역점을 두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학과의 교수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학과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학과통합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행정적인 번거로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본부차원의 통합추진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3) 학과통합이 결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학칙개정과같은 법적, 행정적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학과통합으로 인한 과도기적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대학원은 통합된 학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학과운영은 대학과 분리해서 별도의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